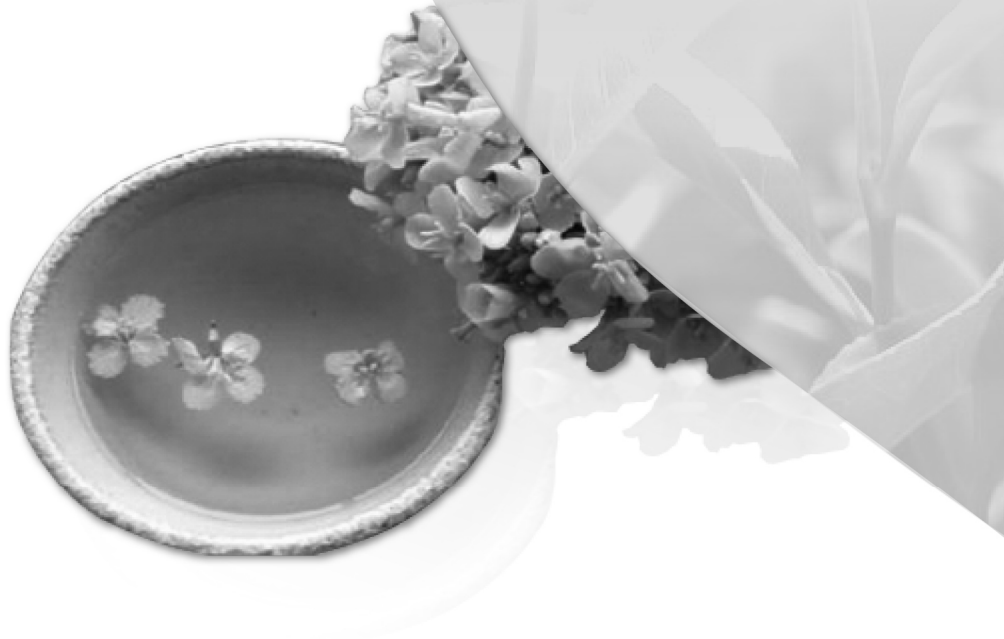


통
지
주
택
박
물
관
대
학

다도과정 제18기

차의 역사와 본질

동양차문화연구소장 김성태



2강



차의 역사와 본질

| 김 성 태 |

동양차문화연구소장

오늘날 우리나라는 역사 개원 이후 유래가 없을 만큼 차문화가 널리 보급되어 최고의 흥성기를 누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요소요소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규모의 차교육 단체가 있고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차회를 만들어 차생활을 누려가고 있다. 양적인 면으로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인구비례로 볼 때 세계 최고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에 대한 문화적 축적이 없이 빠르게 양적 팽창을 가져온 우리나라 차문화속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모두가 차문화의 역사와 본질을 소홀히하며 차를 접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차문화는 근대들어 형성된 유행의 문화가 아니라 매우 유구한 역사와 동양의 사상을 배경으로 태동된 문화이다.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는 이 세상에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대부분의 음료는 음료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지 못하지만 차는 모든 사람들이 자못 다르게 접하게 되는데 차는 정신음료라는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료들은 단순하게 마시면서 성분과 청량감이나 갈증, 그리고 접대에서 유용성 정도를 이해하며 마시면 되지만 차를 마실 때에는 다른 음료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며 행하게 된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막연하고 명분뿐인 행위로서 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 하나의 행위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차문화의 실상이다. 동양의 차문화는 절대로 그러한 허영을 위한 과시문화가 아니며 사상과 인문학적인 탄탄한 토대위에서 성립된 선비 문화이다. 따라서 차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동양

에서 처음에 어떤 이유로 차와 인간이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조선시대 잠시 꽃피웠다 사라졌던 차문화가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의 유구한 전통을 지닌 차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다시금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차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절대적 문화의 빈곤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일본문화를 여과시키거나 선별 할 여유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다.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차에 관한 많은 예절, 행다, 조직 등 많은 부분들이 일본을 그대로 흉내내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차문화가 유입된 900여 년 동안 단절된 시기가 없었고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옴으로 일본인들의 차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전해져 온 전통문화가 되어 있다. 일본의 오랜 차문화의 영향에서 축적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분명히 우리가 잘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할 모순된 부분들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차문화를 도입할 당시의 중국의 차문화 형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에서 차문화가 가장 변질되고 타락하였던 시기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곧바로 무사들의 정치수단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수정하거나 다듬을 겨를도 없이 화석처럼 굳어져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일본 차문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차문화의 현주소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 차문화의 역사

삼나라 국가 일본은 예로부터 자신들의 문화가 미개함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당시 절대적 문화의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나라 시대(奈良時代 710-784) 이전부터 시작된 견당사(遣唐使) 파견은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이 시점 당나라(唐 618-907)와 공식적으로 13차례의 견당사 파견을 통해 교류했던 기간에 다녀온 승려들로부터 차와 종자를 들여왔다는 기록이 일본서기(日本書記)에 여러 번 등장한다. 이때 일본에서의 차마심은 모두 당나라에서 수입된 차와 다구들로서 지배계층을 위시한 최상류 계층의 문화에 불과했으며 본격적으로 차문화가 확산

되었던 시기는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겐창시대, 1185~1333) 초기였다.

일본의 유학생들은 남송(南宋)시기 선찰(禪刹) 들이 많았던 절강성(浙江省) 임안(臨安)의 천목산(天目山)과 영해(寧海)의 천태산(天台山)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선종을 수학했다.

이 지역은 남송의 도읍으로서 황실이 있는 항주(杭州)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여 배후에 황실과 귀족층의 후원으로 번성했던 선찰(禪刹)들로 유학생들은 순수한 선종 수학의 목적 외에도 남송과 정치적 교류의 목적을 지니기도 했다.

승려 영서(榮西, 에사이 1141~1215)는 원래 천태(天台)의 교학을 공부했던 승려로서 1168년과 1187년 두 차례 입송(入宋) 하여 황실 인근의 항주 전단강 옆 육왕산(育王山)에서 유학했고 천태산의 만년사(萬年寺)에서 스승 허암회창(虛庵懷敞)으로부터 화두를 중시하는 간화선(看話禪)의 임제종 황룡파 선법을 익히고 선맥의 도일(渡日)을 인가 받는다.

1191년 귀국하여 가마쿠라(鎌倉) 막부의 협조아래 교토(京都)에 수복사(壽福寺)와 건인사(建仁寺)를 조영하면서 선종을 개창하였다. 또한 에사이(榮西)는 이때 송나라로부터 가져온 차 종자와 재배법 그리고 가루차의 제다법과 음다법을 일본에 전파하였고 차가 건강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차의 약리기능을 설명한 깍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때 도입된 송나라 다풍(茶風)이 일본에 정착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일본 가루차문화 시원의 정설로 여긴다.

송(宋)나라의 연고차(研膏茶)에서 시작하는 일본차

송나라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가장 차문화가 번창했던 시기였으며 예술적 차문화의 시대로 말하지만 당시는 연고차(研膏茶)의 시대였다. 연고차(研膏茶)란 찻잎을 시루에 찢 뒤 절구에 찧어 천으로 만든 자루에 넣고 압착기에 눌러 여러 번 차액을 모두 짜낸 찻잎을 덩어리로 만든 차를 말한다.

마실 때에는 차 덩어리를 숯불에 구운 뒤 가루로 만들어 다완이나 차호를 이용하여 마셨는데 차액을 짜내어 버렸으므로 당연히 짭고 쓴 맛이 없었고 바삭 구워 구수하며 부드러운 맛을 내지만 그야말로 차라고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천박하고도 조악한 차였다.

연고차는 당(唐)나라가 멸망하고 오대시기(五代時期, 907-979)들어 개발된 차였는데 고려(高麗)에 먼저 전해졌고 2세기 정도 뒤에 일본(日本)으로도 전해진다. 당나라

의 병차(餅茶)는 찻잎속의 액을 짜내지 않았으므로 마시려면 쓰고 뚫었기에 오랜 시간동안 차를 달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승들이나 선비들이 지닌 지적면모를 흉내 내기 위하여 남들에게 자신도 차를 마신다는 시늉이나 하려했던 천박한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찻잎 속 액을 짜낸 연고차가 선호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분들이 추출된 껍질에 불과한 차를 시늉으로 마시던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못 이겨 차 가루를 흔들며 거품을 내는 장난을 시작하면서 차마심은 어느새 본질에서 까맣게 이탈하여 다완 속에 거품놀이를 하는 오락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다완 속 거품을 내는 놀이가 확대 되면서 누가 기교를 잘 부리며 멋지게 거품을 내는가 하는 차 겨루기 대회(鬪茶)가 성행했다.

연고차는 자리만 바꾸면 둔갑 되면서 투차(鬪茶)에서는 예술로 불리어 졌고, 귀족들의 찻 자리에서는 격식을 키워 권위로서, 여인의 손에서는 아름다움으로, 선비들의 손에서는 고상함으로, 선승들의 손에서는 선차(禪茶)로 불려지면서 차의 본질과는 멀어져 갔다. 내적 공허를 작위적인 격식이나 과시로서 표출시켜 채우려 하는 오늘날 우리 차문화 현실과 다를 바 없는 님은꼴의 시기였다.

송나라에 유학했던 일본의 선승들은 이러한 지경의 차문화속에서 그들과 함께 차문화를 누렸으며 송(宋)에서 놀이 장난에 불과했던 연고차(研膏茶) 문화를 일본으로 가져가 최상의 선진 문화를 누리다 돌아온 선승인 양 일본에 정착시켰던 것이다.

일본의 다조(茶祖)라 불리 우는 센리큐(千利休)

우리나라 차인들이 일본의 센리큐(千利休 1522-1591)를 거론할 때 대부분 서슴없이 와비차(侘び茶)를 창시했고 일본의 다도를 완성시킨 다성(茶聖)으로 거론하며 마치 우리나라의 다성으로 착각이 들만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센리큐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접어두고 밝은 면만을 부각시켜 전하는 일본 측의 내용들만 접해왔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센리큐는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의 8대 쇼군(將軍)이었던 요시마사(足利義政 1436-1490)의 주변에서 차를 담당했던 할아버지 센 아미(千阿彌)와 부유했던 사카이 상인 출신 아버지로부터 권력 주변 언저리의 실상과 재력을 이용하여 상류사회와 소통하는 처세술을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체득했다.

그는 17세부터 도진(道陳)과 소구(紹鷗)라는 스승으로부터 차를 배웠으며 23세때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선승을 자처하며 종역(宗易, 소에끼)이란 법명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무렵인 24세 때 장남 도안(道安, 1546-1607)을 낳았고 연이어 세 명의 딸을 낳는다.

아무리 승려 제도가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네 명의 자식과 아내를 둔 센리큐는 애초부터 부처님 앞에 일생을 바치려는 선승이 아니었으며 가장이었던 그는 차를 가르치고 고급 다구들을 팔면서 차를 통한 간접적인 영리추구를 해야만 했다.

센리큐가 말한 차인을 구분하는 명인의 조건에서도 고급다구를 갖춰야 함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된 상술을 구사했던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준다.

일찍부터 상류사회와 소통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는 선승이라는 신분과 세련된 다도를 구사하면서 노련한 처세술로서 당시 막부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신임을 얻어내며 최고 권력의 주변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다.

당시 군웅할거(群雄割據)로 여러 정적(政敵)들과의 날카로운 대립 속에 커다란 정치적 야욕에 사로 잡혀있었던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다도 스승이라는 위치에서 센리큐가 했던 역할은 히데요시가 품고 있는 야욕을 표면적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승려로서의 신분을 활용한 다도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히데요시는 차인이라 할 만큼 문화적 면모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으며 단지 그에게 차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수행하는 장소에 제공되는 도구일 뿐이었다. 총명한 센리큐는 히데요시가 지닌 지적, 문화적 열등감과 정치적 구도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히데요시가 작은 차실의 공간속으로 무사들을 불러들여 차분하고 소박한 차인의 화경청적(和敬淸寂)을 내세우며 회유하여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에서 센리큐는 다도를 펼쳐 도왔다.

차실의 공간 속에서 맹신적인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그것이 바로 초암차를 활용한 와비차(侘び茶)이다.

히데요시가 각 다이묘(大名)들을 불러 중국 대륙의 명(明)나라를 토벌하기 위하여 조선을 쳐야 한다는 결의를 차실에서 다질 때나 천황과의 밀착된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위하여 천황을 모시는 성대한 차회에서도 그 중심에는 센리큐가 있었다.

다실과 다기, 예절과 격식을 통해 자신들이 목적하는 것을 중시 했을 뿐 차의 본질 자체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으며 차는 그들의 의도된 형식에 동원된 퍼포먼스로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좋게 말해서 다도스승이었을 뿐 그는 승복에 찻잔을 쥐고 정치·외교는 물론 정적(政敵)들을 제거하거나 회유하는데 있어서 필요시 되는 계락을 짜고

함께 모사를 꾸미며 후광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과 세속적 이익을 추구했던 거간꾼에 불과했다.

히데요시의 배경에 기대어 온갖 교만과 위상을 과시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던 전행에 염증을 느낀 히데요시는 결국 센리큐를 죽게 하므로 종지부를 찍게 한다. 오죽했으면 선승이며 다도 스승이었던 센리큐를 제자의 입장에서 죽음으로 몰 수 밖에 없었을까?

센리큐의 죽음은 그 후손들에 의해 순교자의 죽음처럼 미화되며 오늘날 일본의 다성(茶聖)으로 이상화되어 숭배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다도는 가루차의 센리큐의 후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차노유(茶湯)라는 가루차문화와 전다(前茶)라는 잎차 위주의 차문화가 거대 조직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두 계파에서는 사무라이 사이에서 행해졌던 조직의 결속과 복종을 이끌던 이에모또(家元)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의 전통 차문화라는 명분으로 조직을 다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구조로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잎차문화(전다. 煎茶)의 역사와 실체

중국에서 녹차(잎차)의 시작은 명나라 초기였던 1391년(洪武 24년)몽고의 지배하에 피폐했던 국가 재건정책에서 농업분야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황제는 자신이 마시던 차부터 가루차(연고차)를 합리적인 잎차로 교체하도록 하면서 연고차의 제조를 금지시킨다. 이 정책으로 수세기 동안을 이어온 가루차는 중국에서 사라지며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녹차의 시대가 열려 600여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기후에 따라 잎차의 형태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북위 30도 선상을 전후한 지역에서는 순수녹차가 만들어 졌으며 양자강 수계를 따라 형성된 차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순수 녹차란 제다과정에서 가벼운 살청 후 유념(비비기)을 하지 않고 건조시켜 완성하므로 차마십에서 찻잎이 지닌 순수한 내음과 기운을 얻기 위한 차이다. 바로 차에 내재되어있는 그 기운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중요한 실체이므로 기운은 너무 강해도 약해도 안되며 적절한 기운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은 기후적 요인에 의해 차나무에 내재되기 때문이다.

녹차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 계절이 명확하게 유지되는 지역에서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위 25도 선상의 복건성(福

建省)일대에서는 송대 가루차(연고차)의 유명한 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열대의 기후적 요건으로 찻잎의 성질이 강해서 순수녹차를 만들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찻잎을 발효나 산화과정을 통하여 중화시켜 만드는 잎차의 제다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때 가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색, 향,미를 즐기는 차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홍차와 청차(靑茶)류의 잎차들이다.

17세기 초 복건성에서 홍차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무역선에 선적했는데 이 시기 이러한 발효차가 개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44년 명(明)이 만주족에게 멸망하고 10년 후인 1654년 복건성 복주(福州)의 남쪽 복청현(福淸縣) 황벽산(黃檗山)의 만복사(萬福寺)에서 주석하던 은원용기(隱元隆琦 1592-1673) 선사가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흥복사(興福寺) 승려들의 간절한 초청으로 일본으로 가며 황벽종(黃檗宗)을 개창한다.

중국의 승려가 직접 일본으로 선맥을 들여와 개조(開祖)가 된 첫 종파였다. 그는 황벽종의 전수를 위해 3년 동안만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하려 했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도쿠가와 막부의 절대적 지원 아래 그가 두고 왔던 중국의 산(황벽산)과 절 이름을 그대로 지어 교토에 만복사(萬福寺)를 건립하며 여기에서 생을 마친다.

중국에서 함께 건너온 제자 목암(木庵, 1611-1682, 황벽종 2대조사)과 중국에서 익혔던 잎차 제다법과 차 마시는 방법과 보차(普茶)요리를 이곳에서 전파시키는데 은원 선사는 잎차를 우려마시는 차마심의 방식을 전다(煎茶)라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징이 깃들어 있는 만복사는 현재 일본 전다도연맹의 총본부가 있으며 매년 5월이면 전국 전다도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며 성지화 되어있다. 그러나 그 때 일본에서 시작한 잎차는 순수녹차가 아니었으며 고향이었던 아열대기후의 복건성에서 만들어 음용했던 반발효차의 개념인 청차(靑茶)를 모태로 하였다.

일본에서 가루차에 비해 훨씬 뒤늦게 시작된 이러한 잎차문화는 과거 가마꾸라 시대 유입되어 곧바로 사무라이들의 손에 들어가 권위와 격식 그리고 이에모또(家元)식의 피라미드 조직으로 운영되어 나타나는 가루차문화의 폐단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전다도(煎茶道)연맹을 결성하여 시작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이에모또 방식의 운영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차츰 같은 운영방식을 도입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중국 차문화의 역사

중국은 차의 고향이며 동양문명의 발상지이다. 중국에서 인류와 차의 첫 만남은 문헌적 근거로 2천년에 이르며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차의 역사란 중국을 위시해서 정리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에서 차문화가 존속하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문화 역사의 한 지류로서 흘러 내려오면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한계적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유구한 시간동안 차는 같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았으며 본질과 변질로 인한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였다.

역사 속에서 중국은 언제나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는 절대적 문화의 선진국이었기에 중국의 정치, 사상, 제도, 학문, 문화, 예술 등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나 여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중국 차문화 역사 전반을 되돌아보면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420-581) 차가 선종 불교에 의해 정신음료로서의 위치를 지니며 시작된 이래 1500 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차가 정신음료로서의 본질을 유지했었던 기간은 남북조시기 1백년과 모순투성이의 가루차문화의 터널을 지나 녹차의 시대를 열며 본질을 회복시켰던 명조(明朝)의 2백 여년 등 불과 3백 여 년 정도이며 나머지 기간들은 공백기 내지는 타락된 역사의 시간이었다.

인간과 차의 첫 만남

인간의 차의 활용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바탕에는 동양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동양사상은 곧 기사상(氣思想)이라고도 하는데 우주만물에 깃들고 가득한 기(氣)의 순환에 의하여 변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 대자연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며 인간의 위치를 인식하고 도리와 이치를 다하며 살아가려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태동된 학문, 종교, 철학, 의학, 예술 등 모든 분야는 바로 이 기사상(氣思想)에 근원하여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차와 인간의 만남 또한 바로 이러한 기사상에 근거하여 시작된 동양의학에서 차를 치료약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과 차의 만남이 시작된다.

음양사상을 바탕 하여 태극(太極)이론이 정립 되었고 주역(周易)의 저술과 함께 중국에서는 세상을 이뤄 나가는데 필요한 각 방면의 체계적인 발전이 뒤를 따른다.

음양론에 연원하여 인간의 몸 또한 작은 소우주로 간주하여 정립시킨 동양의학의 태동도 이시기에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인류 최초의 의서로서 BC 770~221년경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황제내경(黃帝內經)인데 이 책은 소문(素問)과 영추(靈樞) 두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9권 16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문(素問)편에서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인체 오장육부의 장부(臟腑)·경락(經絡)·진법(診法)·병기(病機)·치칙(治則)·방약(方藥) 등의 인체생리·병리·진단·치료에 대해 중국 의학이론의 토대를 마련했다.

영추(靈樞)편에서는 경락·침구등 물리요법을 상세히 서술하여 침경(針經)이라고도 부른다.

황제내경의 저술이 세상에 나오면서 중국의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치료의 방법 또한 함께 발전 하게 되는데 이후 500 여년 동안 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치료약재를 집대성한 본초서(本草書)가 나온다. 중국에서 차에 관한 가장 이른 문헌적 자료는 바로 중국 최초의 약재를 다룬 2천 년전 한(漢)나라 시대의 약서(藥書)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책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의 기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적 기질을 파악하여 인체 내 깃들여 있는 기운의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질을 지닌 동물, 광물, 식물 등 360종류를 선별하여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의학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차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계기가 이뤄진다.

최초의 차는 약재(藥材)였다

동양의 의학에서는 인간의 인체 내에는 기본적으로 음(陰氣)과 양기(陽氣)의 커다란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서 내재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음양의 균형 잡힌 기운이 우리몸 전체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중요한 실체로 인식하면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줄기 기운의 균형에 의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균형의 질서가 어긋나면 건강을 잃는다는 원리로서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 인체의 이러한 음양의 기운을 조절 할 수 있는 기질을 지닌 물질들을 찾아내어 정리한 것이 바로 신농본초경이다. 여기에서 차는 고채(苦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요약한다면 화열병(火熱病)을 치료하는 기운을 지닌 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화열병이란 인체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머물러야 할 기운이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많은 생각에 의하여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머리로 쏠려 올라옴(上氣)으로 머리가 무겁고 열이 나며 결국 두통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차의 기운은 이와 같이 상기(上氣)된 기운을 내려주는 기운을 지닌 약재로서 머리에 열이 나고 두통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약이었다. 즉 차의 성분이나 향기, 맛 등을 추구하기 위해 인류가 처음에 차를 마신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차잎에는 어떤 향기나 맛을 지니지 않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향이나 맛은 결국 차를 죽이므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가공을 통하여 차가 지닌 성분의 변질 유도하여 얻어지는 인위적인 현상의 결과물이다.

차와 선종(禪宗)의 만남

동양에서 차는 위와 같이 약용으로 활용되면서 500 여년을 흐른다. 이 무렵이었던 5세기 후반 중국에는 인도에서 왔던 수행자 달마(達磨)에 의해 선종불교(禪宗佛敎)가 시작된다. 기존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속에 모두 내재 되어 있으므로 수행을 통하여 내 속의 숨어 있는 좋은 생각들을 찾아내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선종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경전이나 염불, 형상 등을 배제하며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면서 창시된 선종의 수행자들은 선 수행에 앞서 자신의 정신을 맑게 하고 선에 임하려 차를 마시기 시작한다.

또한 선비들이 학문을 탐구할 때에도 의례적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이때 형성된다. 약으로 마셔왔던 차가 선종의 수행자들과 선비사회에서 필수적인 음료가 되면서 이때부터 차는 정신음료의 위치를 갖게 된다.

오늘날 차를 정신음료라 칭하는 연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되었음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음료에서 과시음료로

중국에서 선종이 창시되었던 당시는 양자강을 구분하여 북쪽에는 북방에서 내려온 선비족이 한족을 몰아내고 세운 왕조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 한족들이 세운 왕조가 대치했던 시대였는데 이 시기를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라 한다.

이 시대 한족의 많은 지식인들은 정복당한 오랑캐의 왕조에 부역하지 않기 위하여

선승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하므로 선승들의 자질이 이후 어느 시기 보다는 우수했으며 이때가 선종불교의 본질이 가장 튼실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남북의 대치는 수(隋)나라에 의해 통일이 되며 수나라는 고구려침공의 대패로 인하여 기울어 당(唐)왕조가 건국된다. 당(唐)왕조는 중국의 한나라 이후 뛰어난 황제들로 인하여 가장 안정된 태평성세를 시현했던 왕조로 평가될 만큼 부강한 왕조를 이뤘다.

많은 신흥 귀족들이 등장했고 부호들과 권력을 지닌 귀족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권력이나 부를 지닌 사람들의 속성은 오늘도 마찬가지로이듯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차문화는 양적으로 크게 번성되었지만 이때부터 차는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며 과시하는 수단이 되면서 심한 본질적 퇴락의 시기를 맞게 된다.

차는 이제 명분만 고상한 정신음료였으며 금·은·옥·자기 등 고급재질을 이용한 다기들과 품격을 중시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색, 향, 미를 중시하는 유행으로 바뀐다.

선종 또한 이전 남북조 시대에 비해 크게 부흥하지만 사원에 풍부한 경제력이 유입되면서 차츰 선종 본연의 정신을 잃게 되며 선승들의 차마심 또한 멋스런 차생활로 변모하면서 선원(禪院)의 선차는 크게 타락한다.

당나라의 차마심에서는 거품을 내지 않았으며 형태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음다법이 있었다. 하나는 자다법(煮茶法)으로서 차를 가루로 만들어 탕술에 네 시간 이상을 달이면 쓰고 뚫었던 차맛은 단맛이 돌며 감미로운 향이 나오는데 이때 다완에 담아 마시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암다법(淹茶法)으로서 차 가루와 뜨거운 물을 함께 차호에 넣어 흔들어 찻잔에 따라서 마시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차가루는 자다법에서 사용되는 차와 다르다.

암다법의 차마심에서는 차를 끓이지 않고 마시는 용이함을 얻으려 하는 음다법으로서 쓰고 뚫은맛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피·파·마늘이나 산수유 같은 양념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마심에 대해서 육우(陸羽)는 하수구에 버려야 할 천박한 차라 폄하하면서 당나라 후기부터 이러한 양념이 첨가된 차는 사라지게 된다.

현재 전해지는 차에 관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육우(陸羽)의 다경(茶經) 또한 이 시기 저술된 것으로 동양의 차문화를 공부하는데 필독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경은 정신음료로서의 차를 다룬 경전이 아니라 당시의 호사스런 귀족사회의 과시적인 차문화를 다룬 내용들로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다경의 내용들을 탐구하여야 한다.

예술적 차문화의 시대 송(宋)

당 후기의 혼란기동안 침체되었던 차마심의 유행은 당의 멸망 후 오대시기(五代時期, 907-979)를 거치면서 중대한 변화를 갖는다.

귀족사회의 과시음료였던 당나라의 차문화는 품격과 격식을 중시했으므로 전문으로 차 끓이는 일을 하는 다동(茶童)이 없으면 어려웠을만큼 귀족을 위한 문화로서 매우 번거로웠다.

당의 멸망으로 귀족사회의 붕괴가 이어지면서 차를 마셔오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처럼 다동을 시켜 차를 끓이는 차마심이 힘들어졌고 좀 더 용이하게 차를 마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연고차(研膏茶)의 개발이 이어진다.

차잎을 시루에 찢 뒤 절구에 빻아 쓰고 뚝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잎속의 즙을 짜내고 숯불에 구워 가루차로 만든 연고차(研膏茶)를 마실 때에는 다완에 차가루와 물을 부어 솔로서 격불하여 거품을 내어 마시는 점다법(點茶法)이나 암다법(淹茶法)을 사용한다.

그러나 차잎 속의 즙액을 짜내버리고 구운 뒤 가루차로 만든 연고차란 실상 송나라 차문화의 본질적 퇴락을 가져 왔으며 예술적 차문화의 시대를 열었다. 차잎을 이미 짜내버린 차탕속의 차는 아무런 성분이 없으므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진정 차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함으로서 이때부터 차마심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전락해버린다.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의 다완 안에 갖가지 방법으로 거품을 내는 흥미진진한 묘미와 더불어 피어난 흰색의 거품과 다완의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즐겼으며 여기에는 대부분 흑유(黑釉)와 청자(靑磁) 다완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당시 크게 유행했었던 차 겨루기대회였던 투차(鬪茶, 茗戰)의 영향으로 여기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다구(茶具)와 점다법(點茶法)에서의 절묘한 행다기법(行茶技法)들을 다투듯 생산해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남방의 건요(建窯)와 길주요(吉州窯)의 흑유 다완, 그리고 북방 하남(河南)의 흑유 다완과 청자에서는 남방의 용천요(龍泉窯) 청자, 북방의 요주요(耀州窯) 청자 다완 등 각지의 도요지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법이 활용된 각양각색의 다구들을 제작한다. 이는 중국 도자 전반에 커다란 혁명적 기술의 발달과 도자 예술에 훌륭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 문화는 귀족들과 일반인들이 차의 본질에 대해 별다른 구별 의식

없이 그 시대에 형성되어 유행하는 문화를 가벼이 즐겼던 것으로서, 차 문화사적 측면으로 볼 때 이런 계층들의 차문화는 정신음료의 위치를 갖지는 못했으며 예술적 차문화의 시대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의 본질을 회복한 본격적 녹차의 시대로

몽고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 명(明)왕조를 건국한 한족의 영웅 주원장(明太朝, 洪武帝)은 비록 나라는 되찾았으나 몽고족의 수탈로 인하여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다.

농업분야는 당시 가장 큰 국가의 당면 문제로서 주원장은 이때 차잎에서 액을 짜내어 버리고 차잎의 빈 껍질로 만들어진 모순된 연고차가 주류를 이루던 차농업 분야에서의 가루차 문화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차 농업부문의 구조개선을 지시한다.

이로서 중국에서는 마침내 가루차 시대가 마감되며 본격적인 잎차(녹차)문화의 시대로 접어든다.

그러나 홍무제의 이러한 정책은 당장 가루차 문화를 단절시키는 역할은 했으나 800여년 이상 가루차를 마셔왔던 한족들에게 녹차문화를 인식시켜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반세기 가량 지난 후에서나 정착되기 시작한다. 이때 시작된 녹차는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마시는 가공에 의해 만들어진 구수한 맛이나 향기를 추구하는 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녹차란 찻잎이 지닌 살아있는 청정한 기운을 그대로 보존시켜 차호 속 물에 피어나게 하여 그 기운을 얻기 위해 마시는 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녹차는 재배는 물론 제다 과정에서도 오늘날의 제다 원리와는 크게 다르며 제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차가 지닌 기운을 최대한 잠재워 보존시켜 사람들에게 전하는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녹차문화의 시작으로 가장 큰 문제를 겪는 곳은 가루차의 최대 산지였던 복건(福建) 광둥(廣東) 남방의 아열대 지방의 다원들로서 기후 특성상 차잎의 기운이 강하여 녹차를 만들 수 없는 생장 조건을 지닌 곳들이었다.

아열대 지역의 차로 녹차를 만들면 강한 기운으로 오히려 정신이 어지럽고 열이나 마실 수 가없게 된다.

그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자구책으로 잎차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효나 산화의 가공을 통해서 차의 기운을 중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 향,미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색, 향, 미를 중시한 반발효차(靑茶)가 개발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차와 오롱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청대(淸代)들어 이러한 반발효차의 인기는 대단하여 복건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 가공법이 개발되었고 색향미를 중시한 청차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한국의 차문화

신라시대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몇몇 기록이 보이지만 여러 정황으로 살펴보면 극히 일부 불교 문화권과 황실의 귀족사회에서나 당(唐)의 차문화를 수입하여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안압지 출토품에서 당대 월주요(越州窯) 다완의 파편들이 여러 점 나왔으며 그 외 몇몇 불교 유적에서 당나라 다구(茶具)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보일 뿐이다.

북송(北宋)시대를 기점으로 송나라의 연고차(研膏茶)가 고려에 유입되어 송나라와 같은 형태의 차문화로서 고려에도 만연되어 있었다.

다만 일본과는 다르게 고려에는 청자기술의 발달로 송나라 다구를 수입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나 고려청자는 송나라 다구의 형태를 본받아 제작되어 사용되게 한다.

고려 초기에는 송나라의 차들을 그대로 수입하여 음용하였지만 그 후 고려에서도 부분적으로 차를 직접 제다하여 마시게 된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차문화 또한 도읍지 지역의 귀족사회의 전유물이었으며 일반 사회에까지 널리 보급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 다구의 발견이 도읍지 부근에서만 편중되어 나타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차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또한 명나라의 녹차문화를 따라가게 되며 고려시대 그토록 번창했었던 가루차문화를 마감하고 녹차음용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 명나라에 비해 50여년 지난 뒤에서야 정착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다기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1450년경에서 1500년까지 대략 50 여년간 제작된 다구 유물들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외 시기에 제작된 다기는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이 시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다기들에서는 청료(靑料)를 사용한 청화자기의 다기가 없었으며 순백자나 분청종류의 다기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선 후기 초의선사(草衣禪師)의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등이 전해지

고 있어 이 시기를 우리차문화의 중흥기라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구유물은 흔적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선종사찰을 위시하여 부분적으로 차를 마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의 문화층을 형성할 만큼 자리 잡지는 못하고 소멸되어 버렸다.

이렇듯 다기유물들에서 나타나는 정황들은 조선시기 차문화의 모습과 존재시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좋은 근거를 제공해준다.

결론

우리나라 차를 연구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차문화가 단절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차문화를 마치 이어져 왔던 우리의 차문화인양 자연스럽게 못하게 전통 차문화라는 명분으로 뉘갠을 만들려고 한다.

전통문화란 민족의 자긍심과 자량이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된 문화였다면 차라리 없었던 전통문화만도 못한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차문화 역사의 중요한 과도기에 있다.

차문화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 이웃나라에서 나타나는 고칠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구호만 전통을 외칠 뿐 일본의 권위적이며 격식에 얽매어 있는 모순된 부분과 중국의 상업적 이해관계로만 포장되어있는 허구의 차문화로 물들어 가고 있다.

차문화는 한 나라의 중요한 정신문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문화가 특정인들의 세속적 이득을 위한 경제적 구조의 원리에 의해 짜여져 나가게 되면서 차츰 정신문화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이란 역사 속에서도 말해주듯이 그 시대의 지식인이며 선비적 면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미래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자리잡도록 가꿔야 할 차문화의 건설현장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소인배처럼 자신만을 위하고 세속적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정의롭고 올바르며 맑은 차문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선비가 되어야 한다. 차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문화의 역사 속에 차와 인간이 무엇때문에 만나게 되

있는가 하는 차의 본질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차에 관한 본질의 올바른 정립이 가장 필요로 한다.

차는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준다. 그 좋은 인연은 지금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들 속에 있다.